

SK케미칼, 임직원 위한 이벤트 진행

이인석 SK케미칼 대표이사가 3월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성남시 삼평동 본사 에코랩 1층 카페에서 <CEO가 쓴다>를 진행했다고 3월15일 발표했다.



교감하는 SK케미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.

2012년부터 시작된 <CEO가 쓴다>는 당초 CEO가 임직원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조직 활성화 행사였으나 지난 2월부터 사회공헌 행사로 변경됐다. 본사를 비롯한 각 지방사업장 임직원이 행사 당일 구입한 음료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CEO가 <희망메이커>에 기부하는 식이다. 이인석 대표는 일일 바리스타로 변신해 직원들에게 음료를 나누어줬다.

희망메이커는 임직원이 지역사회 복지기관 소속 청소년에게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단순 기부를 넘어 복지기관 방문 봉사, 재능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

<화학저널 2013/03/15>